

2008

설날 가정예배



(2008 신년 해돋이 - 부산 해운대)

www.chungpa.or.kr

청파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돕기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

〈가급적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때 가족 중에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한다〉

예배로의 초대 인 도 자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시편1편 인 도 자

찬 송 248. 시온의 영광이 다 같 이

교 독 문 67번 다 같 이

인도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회 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인도자: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회 중: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인도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회 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인도자: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회 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도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회 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인도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말 씀 엡2:14-22 인 도 자

설 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 족 중

찬 송 43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같 이

주 기 도 다 같 이

설교말씀

교회가 처음 시작 되었을 때 그곳에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으며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로 유대 기독교인들은 헬라 기독교인들에 비해 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빵 하나를 나누더라도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먼저 나누어주고 남으면 헬라인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늘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권위를 앞세우며 율법을 잘 모르는 헬라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외인(外人) 취급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생긴 깊은 갈등의 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치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지금 나와 너 사이를 막고 있는 갈등의 담을 허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치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동쪽 벽이 남북 쪽의 벽을 모르듯이 서로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벽들이 모퉁이 돌로 연결 될 때 크고도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치유했습니다. 우리는 완전이 이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완전’을 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주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이해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 무자런 한해도 우리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가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정진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라.
간절한 소원을 밤마다 외쳐라.
지치면 지칠수록 더 크게 외쳐라.
더 큰 용기와 더 큰 꿈을 가져라.

가야될 인연의 길이 엇갈렸다면
후회말고 돌아서라.
꼭 그 길이 아니라도
성공으로 가는 길은 많다.

내 인연과 너의 인연이 평행선을 그으며 달려가지만
결국은 우리도 종점에서 텅빈 손으로 다시 만나리.

너무 많은 꿈을 가지고 덤비지 마라.
세상은 전쟁터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터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더 따뜻한 사람이 되라.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넓은 가슴으로
이 세상을 품어라.

새해에는 지난 날들의 악습을 버려라.
오늘 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하지 못하는 법
오늘 조금이나마 전진했다면
일년 후 십년 후에는 꼭 성공하리니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로워라.

네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애써 설명하지 마라.
세월이 가면 모든게 환하게 드러나는 법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에 집념하라.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애써라.
곳은날일수록 더 간절한 기도를 올려라.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새해에는 심호흡을 크게 하라.